2016년 8월 제100호

자율관리어업 & 수산소식

The Fisheries Newsletter

사단법인 한국수산회 KOREA FISHERIES ASSOCIATION

(06775) 서울특별시 서초구 논현로 83, 삼호물산빌딩 A동 501호 Tel : 02)589-4604 Fax : 02)589-1500 www.korfish.or.kr ■ 발행인 : 회장 김영규 ■ 기사·편집 : 자율관리팀

선진공동체 특별지원사업으로 화성 백미리 공동체 가공공장 준공

총 18억원 투입, 최신설비 갖춘 수산물 가공처리시설 마련 … 어촌 6차산업화 첫발 내딛어

지난 7월 28일 열린 백미리 가공공장 준공식에서 내빈들이 테이프커팅식을 갖고 있다.

김호연 위원장이 경과보고를 하고 있다.

경기도 화성시 백미리 자율관리어업공동체(위원장 김호연)가 수산물의 부가가치를 높여 어촌의 6차 산업화로 도약하기 위한 첫발을 내딛었다.

자율관리어업의 대표주자인 백미리 공동체는 지난 7월 28일 496㎡(건축물 3동) 규모에 달하는 수산물 가공공장 준공식을 가졌다.

이날 준공식에는 최완현 해양수산부 어업자원정책관, 김영규 한국수산회장, 채인석 화성시장을 비롯, 백미리 공동체 회원과 주민 등 200여명이 참석했다.

백미리 공동체의 숙원사업인 가공공장은 해양수산부의 선진공동체 특별사업비 지원으로 건립됐다. 사업비는 선진공동체 특별사업비 10억원(국비 5억원, 시비 4억원, 자담 1억원)에 추가자담 8억원을 포함해 총 18억원이 투입됐다.

선진공동체 특별지원사업은 공동체의 성공모델로 성장·발전할 있는 기반을 마련하고자 해양수산부가 2011년부터 추진해 온 사업으로, 지금까지 19개의 공동체에 200여억원의 특별사업비가 지원됐다.

이 사업추진을 위해 백미리 공동체는 지난 2013년 6월 자율관리공동체 영어조합법인을 설립하고, 이듬해 7월 사업자승인 및 토지매입 과정을 거쳐 2015년 7월 공사착공에 나선 지 1년여 만에 최신설비를 갖춘 현대식 가공공장을 준공했다.

가공공장은 1동에 컴퓨터 전자제어 시스템을 구축한 냉동(-40℃) 냉장(-20℃) 시설과 냉각기(3대), 실외기(3대)가 설치됐다. 2동에는 바지락 등 수산물을 세척, 선별할 수 있는 기계(8종 10대)설비를 구비했으며, 3동에는 간장게장 포장기계(6종 6대)와 사무실이 마련됐다.

이날 준공식에서 김호연 위원장은 인사말을 통해 "오늘 가공공장 준공을 계기로 백미리 공동체가 더 크게 도약할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됐다"며 "우리나라 어촌마을의 롤모델이 될 수 있도록 공동체 회원들과 최선을 다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앞으로 백미리는 가공공장에서 생산되는 조개와 꽃게 등으로 만든 가공식품 판로 확대에 주력하는 한편 백미리 자체 특산품을 개발해 소득창출에 나설 계획이다.

패류 계근

패류 해감작업

사패각 선별

바지락 포장 완제품

최완현 해수부 어업자원정책관 축사 요지

"자율관리공동체의 롤모델로, 여타 공동체 질적 성장 견인"

백미리 자율관리공동체가 지난 2014년 선진공동체 특별사업으로 선정된 '산지 수산물 저장처리시설 설립사업'을 추진한 지 2년만에 현대식 가공공장을 준공하게 된 것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백미리 공동체는 2004년 참여 이후 바지락 종패 방류, 체험마을 운영, 공동작업장 설립 등의 활발한 사업을 지속한 결과, 2008년부터 2011년까지 4회에 걸쳐 매년 우수공동체로 선정되었고, 공동체의 소득 또한 2008년 3억여원에서 2015년에는 35억여원으로 10배 이상 증가하는 등 눈부신 성장을 거듭하고 있습니다.

또한 백미리 공동체는 선진화 교육의 일환으로 시행되는 우수공동체 현장방문에도 참여하여 성공노하우를 적극적으로 공유하며, 함께 성장해 가는 공동체 문화 정착에도 크게 기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준공식을 기점으로 자율관리공동체로서의 역량이 더욱 증진될 것으로 기대합니다.

2015년 기준 3300톤의 바지락을 생산하는 백미리에서 최신설비를 갖춘 수산물 가공공장을 새롭게 건립한 만큼 앞으로 더욱 발전하여 단순한 하나의 공동체가 아니라 대한민국 자율관리공동체의 롤모델로 여타 공동체의 질적 성장을 이끌어 주시기를 바랍니다.

2016년 자율관리어업 평가위원회 개최

해양수산부는 지난 8월 9일 대전 아드리아호텔 회의실에서 '2016년 자율관리어업 평가위원회(위원장: 최완현 어업자원정책관)'를 개최했다.

이번 회의에서는 자율관리어업 공동체 1,119개소에 대한 등급(선진 56, 자립 234, 모범 300, 협동 497, 참여 32개소)을 결정했다. 이날 확정된 공동체 등급은 2015년 11월말 기준으로 참여한 공동체이며, 12월 이후 참여한 공동체 12개소는 제외하여 평가했다.

한편 올해 최우수·우수·장려공동체는 2016년 등급화 결과 모범공동체 중 시·도에서 우수공동체로 추천한 10개공동체 중 상위 4개소를 선정, 현지 확인·검증을 거쳐 자율관리어업 평가위원회에서 활동사례 발표 등을 통해 최종 결정 할 예정이였으나, 공동체별 사업계획서 수정·보완을 거쳐 추후 심의하기로 결정했다.

이번 최우수공동체로 선정된 공동체 대해서는 육성사업비 지원, 정부포상, 홍보동영상 제작 및 전국대회 상영 등 각종 인센티브가 주어진다.

자율관리어업 육성사업비 예산 증액 요청

김호연 한국자율관리어업연합회장을 비롯한 임원진들이 지난 8월 8일 국회 김영춘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을 방문하여 자율관리어업공동체 활성화와 지속적인 수산자원관리를 위한 정부지원의 필요성 및 정부지원에 따른 성과를 강조하고 예산증액을 요청했다.

한편 2015년도부터 지원예산이 감소되고 있다는 소식에 전국 자율관리어업공동체 회원 모두가 정부정책에 실망하고 있다는 분위기도 전달했다.

자율관리공동체 컨설팅 및 컨설턴트 활동

전문분야 컨설팅 안내

자율관리에 참여하고 있는 공동체를 대상으로 하는 전문분야 컨설팅이 실시된다. 기 참여 공동체 중 특정분야 전문가의 자문을 희망하는 공동체에 대하여 해당분야 전문가가 3~5회의 범위내에서 직접 공동체를 방문하여 공동체가 요구하는 분야에 대한 전문적인 컨설팅을 실시하게 된다.

컨설팅이 필요한 주요 전문분야로는 수사자원의 조성 및 관리분야, 체험시설 등 관광과 연계한 분야, 공동체 경영분야, 공동체에서 생산하는 제품의 판매 및 유통분야 등이 있으며, 특별한 제한을 두지 않고 희망분야에 대하여 최대한 지원하게 된다.

전문분야에 대한 컨설팅이 필요한 공동체에서는 언제든지 지자체 수산사무소를 통하여 한국수산회로 신청할 수 있으며, 타당성 검토 후 컨설팅을 받을 수 있다.

▷ 연락처 : 한국수산회 자율관리팀(전화 02-589-4604, 4609)

지역담당 컨설턴트, 컨설팅 이외 교육활동에도 적극 참여

지역담당 컨설턴트(12명)은 공동체에 대한 컨설팅뿐만 아니라 관할지역에서 이루어지는 공동체 및 아직 자율관리에 참여하지 않고 있는 어촌계 어업인을 대상으로 실시하는 교육에도 적극 참여하여 교육을 실시함으로써 자율관리어업 확산에도 힘을 보태고 있다.

지난 7월 중에 활동한 내용은 아래와 같다.

▷ 천명길 컨설턴트

- 2016. 7. 13. / 이작공동체 57명 대상
  - 주관 : 인천광역시 수산사무소
  - 수산자원 관리실태 및 자율관리어업 발전방향

▷ 홍종민 컨설턴트

- 2016. 7. 26. / 경남 통영 서부공동체 27명 대상
  - 주관 : 한국자율관리어업연합회
  - 자율관리어업 정책방향 및 성공한 자율관리공동체의 미래

▷ 임여호 컨설턴트

- 2016. 7. 4. / 전남 여수 연승협회 및 자망 어업인 62명 대상
  - 주관 : 해양수산부 무역통상협력과
  - FTA 수산분야 대응방안과 자율관리어업 확산교육
- 2016. 7. 14. / 전남 새우조망협회어업인, 고흥수협 직원 등 50명
  - 주관 : 해양수산부 무역통상협력과
  - FTA 수산분야 대응방안과 자율관리어업 확산교육
- 2016. 7. 22. / 전국근해통발어업인대표,근해통발수협직원 등
  - 주관 : 해양수산부 무역통상협력과
  - FTA 수산분야 대응방안과 자율관리어업 확산교육

화성 백미리 자율관리어업공동체는?

우리나라 어촌마을의 롤모델 … 수도권의 대표적인 어촌체험마을로 '명성'

백미리 갯벌체험 마차를 타고 체험장으로 이동하는 관광객.

경기도 화성시 서신면 백미리마을은 수도권의 배후에 위치해 접근성이 뛰어난 장점을 활용하여 생산, 가공, 유통, 관광을 접목한 우리나라 어촌마을의 롤모델로 손꼽히는 곳이다. 현재 120여명(100가구)이 어업과 관련된 일에 종사하고 이다.

지난 2004년 자율관리어업 공동체를 결성한 백미리는 모범적인 자원관리 이외에도 수도권과 인접한 지리적 이점을 활용, 어촌체험마을 운영 등으로 큰 성공을 거둔 마을이다. 지난해 이 마을을 찾은 방문객은 12만 5000여명. 이 가운데 체험시설 이용자가 9만여명에 달해 이들이 소비한 비용, 즉 체험프로그램 이용료, 민박·숙박료, 식사비 및 특산물 판매 등 관광과 관련한 직접적인 수익만도 수십억원대에 이르고 있다.

백미리는 바지락으로 이름난 마을로, 옛날에는 바지락만 잡아도 도시민 부럽지 않을 정도로 소득이 높았다고 한다. 하지만 인근 지역에 방조제가 들어서면서 바지락 등 조개류 채취량이 점차 감소하면서 이를 극복하기 위해 '자율관리공동체'를 구성하고, '어촌체험마을'을 대안으로 내놨다.

현재 백미리에는 갯벌과 낚시체험은 물론 요즘 수상스포츠로 뜨고 있는 바다카약 체험장이 조성돼 인기를 끌고 있다. 비록 조류 때문에 먼 바다로 나가지는 못하지만 바다에서 직접 노를 저어보는 체험은 오래오래 잊혀지지 않는 이색 경험이다.

백미리 공동체는 현재 한국자율관리어업연합회 회장을 맡고 있는 김호연 위원장과 함께 이창미 사무장이 큰 역할을 하고 있다. 이 사무장은 지난 2008년 거제 가조도에 위치한 계도어촌체험마을을 조성하는데 산파역을 하며 계도공동체 발전에 힘을 보탰다. 이후 2012년 4월 백미리에 정착한 이 사무장은 백미리가 어촌체험마을로 명성을 높일 수 있도록 각종 체험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체계적인 관리시스템을 갖추는데 주력했다.

"지역 어업인들을 위하는 일이라면 어떤 어려운 일도 마다하지 않는다"는 이 사무장의 열정에 힘입어 백미리마을은 2009년 농림수산식품부가 주최한 우수어촌체험마을 선정대회에서 대상을 수상한데 이어 지난해에는 해양수산부가 전국 어촌체험·휴양마을을 대상으로 한 등급 평가에서 일등어촌 마을로 선정됐다. 백미리는 경관 및 서비스, 숙박, 체험, 음식 4개 부분 모두에서 1등급 판정을 받아 경기도에서 유일하게 일등어촌마을에 선정돼 다시 한번 성가(聲價)를 높였다.

백미리체험마을에서 인기를 끌고 있는 카약타기 체험 홍보물.

김호연 위원장이 공동체 사무실에 전시돼 있는 각종 상장 앞에서 포즈를 취했다.

백미리어촌체험마을을 발전시키는데 크게 기여하고 있는 이창미 사무장.

이창미 사무장이 새로 건립된 수산물 가공공장 내부시설을 최완현 어업자원정책관과 김영규 한국수산회장에게 설명하고 있다.

이슈

백미리마을, '복합문화공간'으로 접목 시도

7월 28일 계원예술대학교 교수진들이 백미리마을을 방문, 관계자들과 발전방안을 협의하고 있다.

백미리 수산물 가공공장 준공식이 열렸던 7월 28일 오후, 공동체 사무실에서는 준공식 내빈으로 참석한 최완현 해수부 어업자원정책관, 김영규 한국수산회 회장을 비롯, 경기도와 화성시 수산과 관계자들이 계원예술대학교(광고·브랜드디자인과) 교수들과 백미리 공동체의 또 다른 발전을 논의하는 모임을 가졌다.

계원예술대학교는 최근 백미리마을주민 17명의 지나온 삶의 이야기를 자서전으로 만들어 줘 화제를 모았다. 이는 노인과 청년, 도시와 어촌 간의 소통과 공감의 장을 백미리마을을 통해 마련하고자 계원예술대가 기획한 첫 번째 작품이다.

이들은 백미리마을에 갤러리와 커피 델리숍, 기념품 매장, 마을 특산품 판매 등을 할 수 있는 커뮤니티센터를 마련, 마을주민과 관광객들에게 다양한 문화체험을 제공하기 위해 수시로 백미리를 방문해 지혜를 모으고 있다.

낚시 관리 및 육성법 하위법령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낚시 안전 및 환경보호 강화, 통합폐업신고제 도입
낚시어선 승선자명부 부실작성 등 과태료 처벌 '신설'

낚시어선에서 낚시를 즐기고 있는 관광객. 해수부는 최근 낚시 안전 및 환경보호를 위해 최근 관련법령 개정작업을 서두르고 있다.

해양수산부가 지난 5월 29일 개정된 '낚시관리 및 육성법' 하위법령 일부개정령(안)을 8월 5일부터 9월 13일까지 입법예고한다.

개정된 법률의 주요 내용은 먼저 낚시터 원상회복 비용의 예치의무 규정이 삭제된다. 이미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등에 원상회복 규정이 있어 중복 규제 해소 차원에서 법률이 개정됨에 따라, 관련 시행령 및 시행규칙 조문도 함께 삭제된다.

또 하천·호소 등 '해사안전법'이 적용되지 않는 곳의 낚시어선 운항규칙을 마련했다.

이와 함께 유해낚시도구와 미끼에 대한 검정기관 지정 기준과 세부 검정절차가 마련된다. 시행령에는 검정기관 지정기준과 세부업무 수행을 위한 근거 규정이, 시행규칙에는 낚시도구별 검정방법, 검정기관 지정 및 취소(업무정지)절차와 행정처분 기준 등이 마련된다.

아울러 위법행위에 대한 과태료 기준이 마련된다. 법률에 낚시어선 승선자명부 부실작성, 신분확인 미이행, 승선자 명부 보관기간 위반, 선원의 낚시전문교육 미이수 등 6건의 위반행위에 대한 과태료 부과 근거가 신설됨에 따라 행위별, 위반횟수별 과태료 기준액을 마련했다.

이밖에 낚시터업·낚시어선업 통합 폐업신고 제도가 도입된다. 그간 낚시터업 및 낚시어선업 폐업신고와 사업자 등록 폐업신고를 할 경우 관할 시·군·구청과 세무서를 각각 방문해야 했으나, 이제는 관할 시·군·구청 또는 세무서에서 동시에 신고할 수 있게 된다.

한편 이번 개정령(안)에 의견이 있는 개인이나 기관·단체는 9월 13일까지 해양수산부 수산자원정책과, 해양수산부 누리집(www.mof.go.kr) '법령바다/입법예고란' 또는 통합입법예고시스템(http://opinion.lawmaking.go.kr)에 의견을 제출하면 된다.

경북 수산자원연구소, 문치가자미 종묘 방류

경북 수산자원연구소는 문치가자미의 대량 종묘생산에 성공, 포항 연안해역에 치어 11만 마리를 방류했다.

경상북도 수산자원연구소는 문치가자미(일명 봄도다리)의 대량 종묘생산에 성공해 지난 7월 27일과 29일 포항 연안 해역에 치어 11만 마리를 방류했다.

이번에 방류하는 문치가자미는 1월말 동해 연안에서 자연산 어미를 확보해 인위적으로 성숙, 산란유도 및 부화시켜 기른 몸길이 4~8㎝의 질병검사를 마친 건강한 종묘다.

연구소는 어업인 맞춤형 자원증식 사업추진의 일환으로 지난해 문치가자미의 대량 종묘생산 기술을 확립했다.

영광군수협, 참꼬막 종묘방류

영광군수협(조합장 김영복)은 지난 7월 22일 염산면 봉남리 신추항(합산항)에 영광군수협 임원 및 대의원 어촌계장, 월봉어촌계원, 영광군청, 해양수산과학원 공무원 등 5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참꼬막 종묘를 방류했다.

영광군수협의 참꼬막 방류행사 모습.

영광군수협이 방류한 봉남리 해역 갯벌은 영양분이 풍부하여 꼬막이 서식하기 좋은 환경으로 2년 후에 성패로 성장해 어가소득 증대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근해통발수협, 태안 신지도 해역에 꽃게 종묘 방류

근해통발수협의 꽃게 종묘 방류 모습.

근해통발수협(조합장 김봉근)이 근해통발선주협회, 부산·경남지역 꽃게업계 관계자 등과 합동으로 7월 1일 충남 태안 신진도 해역 일대에서 꽃게 종묘 방류행사를 가졌다.

이번 방류행사에선 수협과 선주협회 등 민간 차원에서 십시일반으로 돈을 모아 23만여마리의 치게를 방류했다.

수협, 자율관리공동체 선진화 교육 실시

수협중앙회가 주관한 금년도 제1차 자율관리공동체 선진화교육 모습.

수협중앙회는 6월 22일부터 사흘간 천안 수협연수원에서 자율관리공동체 위원장 등 약 60명이 참석한 가운데 '2016년 제1차 자율관리공동체 선진화 교육'을 실시했다.

이번 교육에서는 △정부의 자율관리어업 정책방향 소개 △자율관리어업의 이해 △자율관리어업의 지속적 추진방안 논의 △해외 수산자원관리 방안 소개 등 다양한 교육 프로그램이 진행됐다. 특히 이론 교육에 그치지 않고 선진 공동체 현장을 직접 방문해 운영 현황 등 성공노하우를 청취하고 성공사례를 벤치마킹할 수 있는 기회도 마련됐다.

뱀장어 자원관리 위해 '내수면어업법' 시행령 개정 추진
극동산 뱀장어 포획 크기 제한·금지 기간 신설

해양수산부는 최근 자원량 감소가 우려되는 극동산 뱀장어의 자원관리를 위해 내수면어업법 시행령 개정안을 8월 12일부터 9월 21일까지 입법예고한다.

우리나라를 포함한 동아시아에서 많이 소비되는 극동산 뱀장어는 현재까지 인공종자의 대량생산 기술이 개발되지 않은 상태다. 이에 따라 바다로부터 강을 거슬러 올라가는 뱀장어의 어린물고기인 실뱀장어를 잡아서 양식용 종자로 사용하고 있다.

그러나 최근 전 세계적으로 뱀장어 자원은 감소하고 있는 반면 국내외 수요는 증가하고 있어 적정한 자원관리가 불가피한 상황이다.

이에 해수부는 뱀장어 자원의 지속가능한 이용을 위해 과학 조사·연구와 어업인·전문가 의견수렴 결과를 토대로 극동산 뱀장어의 포획 크기 제한과 포획 금지 기간에 대한 규정을 신설하기로 했다.

우선, 댐·호·하천을 포함한 전 내수면에서 15~45cm 길이의 뱀장어 포획을 제한한다. 또한, 뱀장어가 산란을 위해 바다로 내려가는 시기인 10월부터 이듬해 3월까지를 포획 금지기간으로 설정할 예정이다.

다만, 종자로 사용되는 15cm 미만의 실뱀장어는 연중 포획할 수 있고, 뱀장어가 하구로 내려가기 어려운 댐이나 호에서는 포획 금지기간을 적용하지 않는다.

내수면어업법 시행령 개정안은 입법예고 후 규제 심사, 법제처 심사, 국무회의 상정 등 법령 개정절차를 거쳐 내년 하반기부터 본격적으로 시행된다.

보령·태안에 주꾸미 자연 산란장 조성한다

해수부, 주꾸미 자원회복 위해 산란용 피뿔고둥 패각 130만 개 설치

해양수산부(장관 김영석)는 최근 주꾸미 자원 회복을 위해 주요 서식지인 충남 보령시와 태안군 연안에 주꾸미 자연산란장을 조성하였다고 밝혔다.

주꾸미는 5월부터 7월이 주 산란기로, 연안의 바위틈이나 패류의 빈 껍질 안으로 들어가 150~650개의 알을 낳는다. 어업인들도 주꾸미 생산을 위해 패류껍질어구를 사용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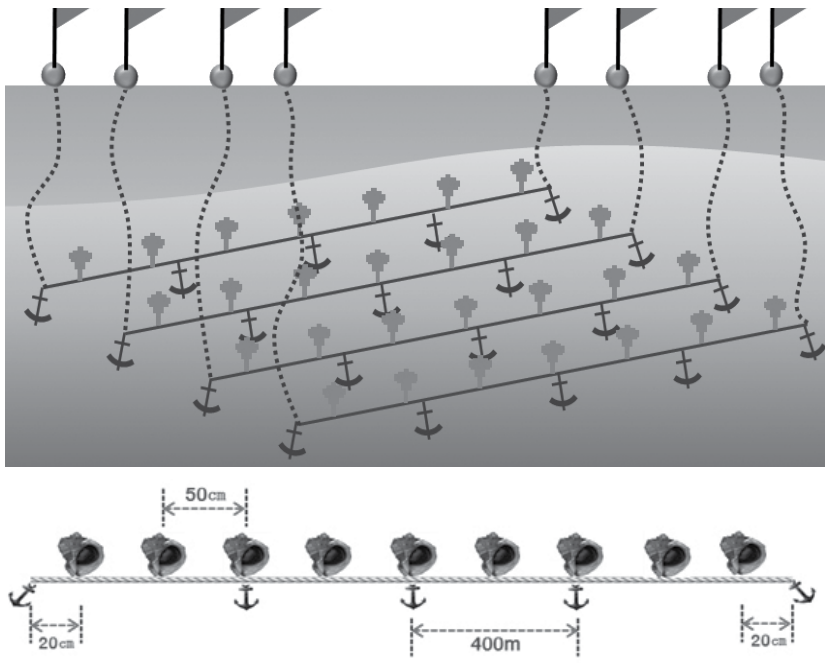
주꾸미 생산량은 2010년 2,977톤에서 2015년 2,232톤으로 지난 5년간 약 25% 감소하였으며, 충남 지역 생산량도 1,431톤에서 1,069톤으로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해수부는 자연 산란장을 조성하여 주꾸미 자원량을 회복시키기 위하여 지난 5월 27일부터 6월 8일까지 보령시 연안 3개소, 태안군 연안 2개소 등에 피뿔고둥 껍질 130만개를 로프로 연결하여 설치하였다. 또한, 7월 하순에 수중 촬영으로 어미 주꾸미 532개가 피뿔고둥으로 들어가 있는 것을 확인하였다.

최완현 해수부 어업정책관은 "서해안에 주꾸미 자연 산란장을 조성하여 자원회복을 위해 노력해 나갈 것"이라면서, "장기적으로는 주꾸미 어업생산량 동향 파악을 통해 자원회복 효과를 점검해 나갈 계획이다."라고 밝혔다.

한편, 해수부는 수산자원을 조성하고 이전 수준으로 회복할 수 있도록 수산자원의 생태와 습성을 이용하여 해역별로 산란장과 성육장을 조성하는 '수산자원플랫폼'을 구축하고 있다.

〈주꾸미 자연 산란장 조성 모식도〉



피뿔고둥 설치 모습

피뿔고둥 내에 어미 주꾸미 인입 모습

거제·부산·울산·포항에 노무라입깃해파리 주의 경보 발령

해양수산부(장관 김영석)는 8월 5일 거제, 부산, 울산, 포항 연안에 노무라입깃해파리 주의경보를 발령했다. 해수부는 지난 2013년에 노무라입깃해파리 주의 경보를 발령한 바 있다.

7월 27일부터 8월 3일까지 국립수산과학원(원장 강준석)과 지자체의 조사 결과, 동 해파리는 울산 해역에서 평균 2.3개체/100㎡의 밀도로 밀집 출현한 것으로 나타났다.

경남 거제 해역에서는 30~50cm 크기의 노무라입깃해파리가 하루 약 2톤, 부산과 포항 영일만 해역은 3~40여개체가 어망에 계속 들어와 어업피해가 우려되는 상황이다.

노무라입깃해파리는 5월 동중국해에서 발생하여 올해 강하게 형성된 해류의 흐름에 따라 6월 말 전남 남해로 유입되었다. 지난 7월 말경 경남 거제 해역 등 동해 남부 해역으로 이동하여 대량 출현한 것으로 보인다.

노무라입깃해파리 주의 경보를 발령한 해역은 제거망을 부착한 지역 어선을 동원하여 노무라입깃해파리를 제거할 예정이다.

한편, 우리나라 해역에서 가장 흔히 보이는 보름달물해파리는 올해 높은 수온으로 인하여 조기에 대량 출현했다. 이에 따라 해수부는 지난 6월 2일부터 해당 지역 어선을 동원하여 경남에서 671톤, 전북에서 186톤 및 전남에서 442톤을 제거했다.

최완현 해수부 어업자원정책관은 "위기대응매뉴얼에 따라 해파리 감시와 어업피해 예방지도를 강화하는 한편, 출현 해역에는 해파리 구제작업도 신속히 수행하겠다."라면서, "여러분들의 협조가 해파리 모니터링이나 신속한 방제에 큰 도움이 되는 만큼, 해파리를 목격할 경우 전용 전화(051-720-2236)로 신고해 주시기 바란다."라고 당부했다.

수산자원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16.5.1.시행) 주요내용

어종별	포획금지 기간		포획금지 체장	
	현 행	신설 · 조정	현 행	신설 · 조정
대구	1.1.~1.31. (부산, 울산, 경남)	3.1.~3.31. 다만, 1.1.~1. 31.(부산, 경남)	–	–
문치가자미	12.1.~ 다음 해 1.31. (다만, 경북 2.1.~2.28.).	12.1.~다음 해 1.31.	–	–
전어	5.1.~ 6.30. 다만, 강원, 경북 제외	5.1.~7.15. 다만, 강원, 경북 제외	–	–
참조기	4. 22.~8. 10.(유자망)	7.1.~7.31. (유자망 4.22~8.10.)	〈신설〉	15센티미터 이하.
갈치	〈신설〉	7.1.~7.31. (근해채낚기, 연안복합 제외)	〈신설〉	항문장 18센티미터 이하.
고등어	〈신설〉	4.1.~6.30.의 기간 중 1개월의 범위에서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간.	〈신설〉	21센티미터 이하.
말쥐치	〈신설〉	5.1.~7.31.	〈신설〉	18센티미터 이하
옥돔	〈신설〉	7.21.~8.20.	–	–
미거지	〈신설〉	8.1.~8.31.	–	–
소라	6.1.~8.31. (전남 여수시 삼산면, 제주도) 6.1.~9.30. (경북 울릉군 울릉도, 독도)	6.1.~8.31. (전남 여수시 삼산면, 제주도), 7.1.~9.30. (제주도 제주시 추자면 추자도) 6.1.~9.30. (경북도 울릉군, 울릉도, 독도)	–	–
오분자기	〈신설〉	7.1.~8.31.(제주도)	–	–
살오징어	4.1.~5.31. (다만, 정치망어업 제외)	4.1.~5.31. (4.1.~4.30. 근해채낚기, 연안복합, 다만, 정치망 제외)	〈신설〉	외투장 12센티미터 이하
낙지	〈신설〉	6.1.~6.30. (다만, 시 · 도지사가 4.1.~ 9.30. 중 1개월 이상의 기간을 지역별로 따로 정하여 고시하는 경우에는 해당기간)	–	–
갯장어	–	–	〈신설〉	40센터미터 이하
미거지 (곰치류)	–	–	〈신설〉	40센티미터 이하
키조개	–	–	〈신설〉	각장 18센티미터 이하 (부산, 울산, 강원, 경북, 경남)
대문어	–	–	300그램 이하	400그램 이하
민꽃게	–	–	〈신설〉	복부에 알이 붙어 있는 암컷
비고	해당 기간 중 참조기, 갈치, 고등어를 어획량의 10 퍼센트 미만으로 포획 · 채취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갈치, 고등어, 참조기, 살오징어는 어획량 중 각각 해당 체장의 어종을 20퍼센트 미만으로 포획 · 채취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해양수산 통합행정 20주년 기념식

해양수산부는 8월 8일 전직 장·차관들이 참석한 가운데 정부세종청사 대강당에서 열린 해양수산 통합행정 20주년 기념식을 가졌다. 이날 기념식에서는 해양수산 통합행정 20년간의 주요 정책자료를 담은 타임캡슐 봉인식도 가졌다.

해수부, 우리 수산물 수출 꾸준한 증가세

7월 2억불 수출, 전년 동기 대비 19.8% ↑

우리 수산물 수출 증가세가 계속 이어지고 있다.

해양수산부가 잠정집계한 수산물 수출 동향에 따르면 7월 수출액이 2억불로 지난해 같은 기간 1억6700만불 보다 19.8% 증가했다. 또한 올해 1월부터 7월까지 누적 수출액은 11억9800만불로 전년 동기 11억2500만불 보다 약 6.5% 늘어났다.

월별 수산물 수출액이 6월(2억200만불)부터 2개월 연속으로 2억불을 넘어선 것은 지난 2012년 10·11월 이후 처음이다. 또 2014년 이후 올해 5월까지 월별 수산물 수출액이 2억불을 초과한 달이 없었다.

이같은 수산물 수출 호조세는 수출단가가 높은 활어, 신선냉장 수산물 등의 수출 증가에 기인한 것으로 풀이된다. 신선냉장 수산물, 활어패류, 수산가공품의 수출이 전년 동기(1~7월) 대비 각각 25.2%(1억2800만불), 8.5%(3600만불), 7.7%(4억3000만불) 늘어나 전반적인 수출 증가세를 주도했다.

지역별로는 자유무역협정(FTA) 체결한 유럽연합(EU), 중국, 아세안(ASEAN)으로의 수출이 전년 동기 대비 각각 37.8%(8800만불), 14.1%(2억800만불), 7.1%(1억8300만불) 증가했으며 최대 수출 대상국인 일본도 4%(4억1600만불) 늘어났다.

품목별로는 지난해 수출 3억불을 달성한 김이 전년 동기 대비 21.6% 증가한 2억1500만불을 기록해 수출 호조세를 이어갔다.

수출 1위 품목인 참치는 참치캔 원료로 사용되는 가다랑어 수출 호조와 함께 고급 횟감용 참치인 황다랑어 수출도 호조를 보여 전년 동기 대비 16.5% 증가한 3억1400만불을 나타냈다.

특히 전복은 중국으로 활전복 수출이 급증하면서 전년 동기대비 66.6% 증가한 3100만불을 수출했다.

해수부, 내수면어업 전국적 실태조사 실시

어업인수, 소득현황 등 방문조사

해수부는 내수면어업 통계자료 마련을 위해 전국적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있다.

해양수산부가 7월 말부터 한 달간 내수면 어업인을 대상으로 한 전국적인 내수면어업 실태조사를 실시한다.

내수면어업 실태조사는 사실상의 첫 조사로, 관련 기초자료가 전무한 상황이다.

그간 5년마다 농림어업 총 조사를 통해 내수면어업인수는 조사해왔지만 내수면어가 소득은 별도로 조사하지 않았고, 매년 실시하는 어가경제조사도 해면을 중심으로 조사해, 소득 등 내수면 어가에 대한 통계자료가 부족한 상황이었다.

이에 해양수산부는 향후 한 달간 내수면어업인 수(종사자 포함), 사업 운영형태(전업, 겸업), 소득현황, 유통경로 등 내수면어업 전반에 대한 현황을 파악할 예정이다.

그동안 내수면어업인수나 어가 수는 농림어업 총 조사를 통해 5년마다 조사해 왔으나, 내수면어가 소득은 별도로 조사하지 않았다.

조사는 지역별, 어업 종류별 표본어가를 선정, 현장 방문조사를 통해 신뢰성 있는 결과를 도출한다는 계획이다.

전국연안어업인연합회, 남해에서 출범식

연안어업인의 권익보호와 어업질서 확립을 위해 결성된 국연안어업인연합회가 7월 27일 남해군 실내체육관에서 출범식을 열었다.

연안어업인의 권익 보호를 위해 결성된 전국연안어업인연합회가 7월 27일 경남 남해군 실내체육관에서 출범식을 가졌다. 이날 출범식에는 박영일 남해군수를 비롯, 경남·전남·부산·경북·전북·충남 등 전국 각 지부 회원 1000여명이 참석했다. 행사는 출범경과보고에 이어 대회사, 결의문 낭독 등의 순으로 진행됐다.

이성민 연합회장은 대회사를 통해 "연안어업인들의 권익보호는 물론 어업질서 확립을 위해 전국 연안어업인들의 역량을 결집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우리 수산물, 중국에 이어 일본도 집중 공략

8월 17~19일 도쿄 수산박람회서 김·게살·고등어가공품 등 10개 업체 참가

해양수산부(장관 김영석)는 우리 수산물 홍보를 위하여 8월 17일부터 19일까지 일본에서 개최되는 '2016 도쿄수산박람회'에 참가했다.

올해로 제18회를 맞이하는 도쿄수산박람회는 일본수산회가 주최하는 일본 내 최대 규모의 수산 전문 박람회로서, 올해는 수산물·수산가공식품·수산기자재 등 20개국의 800여개 업체가 참여했다.

이번 도쿄박람회 참가를 통해 우수한 우리 수산물을 적극적으로 홍보하고 현지 경향에 맞는 제품을 발굴하여 올 하반기 더욱 나은 수출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현재 일본 시장은 참치, 굴, 김 등 우리나라 수산물 전체 수출액의 35%를 차지하는 최대 수출시장이다. 지난해 일본으로의 수산물 수출액은 664백만 불이었으며, 올해 7월까지 대일본 수출금액은 415백만 불로, 작년 동기대비 4% 증가했다.

이번 행사에는 120㎡ 규모의 한국 홍보관에서 해도원 등 10개 업체가 해조류, 젓갈류, 고등어 가공품, 성게, 게살 등 제품을 출품했다. 업체는 대일 수출 품목의 다변화를 도모하는 한편, 1,170만불 규모의 수출계약을 목표로 해외 구매상과의 적극적인 비즈니스 매칭을 추진했다.

이와 함께, 우리 젓갈류를 속재료로 넣은 주먹밥(일본명 오니기리), 무더운 여름에 맞는 시원한 미역오이냉국, 일본식 조미료를 이용한 고등어조림 등 요리시연 행사를 통해 일본 현지인에게 우리 수산물과 일본 음식이 맛있게 어우러질 수 있음을 홍보하였다.

해양수산부 관계자는 "도쿄수산박람회는 기업 대 기업(B2B)의 성격이 강한 박람회인 만큼, 현지 입맛에 맞는 제품들을 중심으로 비즈니스 매칭을 적극 추진하여 대 일본 수출 증가세를 이어갈 것"이라고 밝혔다.

속타는 농수축산인들 여의도에서 대규모 규탄대회

'국산 농수축산물, 김영란법 적용 제외 요구' 궐기

7월 21일 여의도에서 열린 '김영란법 규탄! 농수축산물 제외 촉구 전국농수축산인대회!'에 참석한 어업인들을 비롯해 전국 농수축산인들이 김영란법 도입에 따른 농수축산업 위축을 우려하며 가두시위를 하고 있다.

전국 각지에서 모인 어업인들이 농축산 종사자들과 함께 7월 21일 여의도에서 대규모 규탄대회를 열고 '국산 농수축산물'을 김영란법 적용 대상에서 제외할 것을 강력히 촉구했다.

한수연, 한국농수축산연합회 등 29개 단체는 여의도 산업은행 앞에 모여 '김영란법 규탄! 농수축산물 제외 촉구 전국농수축산인대회!'를 개최하고 "김영란법 시행령 제정의 금품대상에서 국내산 농수축산물을 제외하라"고 요구했다.

이날 대회에는 전국의 농어업인들을 비롯해 김재만 한국수산업경영인중앙연합회장, 김영규 한국수산회장, 김진필 한국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장, 김홍길 전국한우협회장이 참석해 한 목소리로 농수축산물의 김영란법 적용을 규탄했다.

한편, 김영란법은 각계각층의 우려 속에 오는 9월 28일 발효될 예정이어서 법 시행을 앞두고 어업인을 비롯한 수산물 요식업 종사자들이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앞서 어업인들은 전국 수협조합장 명의로 작성된 '청탁금지법 금품대상의 수산물 적용 제외를 위한 건의문'을 지난 6월 20일 국민권익위원회에 제출한 바 있다.

수산업계 "농수산물은 뇌물 아냐 … 김영란법 제외해야"

한수총, 성명서 내고 농수산물 제외 촉구

한국수산산업총연합회는 지난 8월 3일 성명서를 내고 '김영란법'(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에서 농·축·수산물을 제외해달라고 요청했다.

한수총은 성명서에서 "김영란법이 우리 사회의 투명성 제고와 국가 청렴도 향상에 기여할 것이라는 측면에는 충분히 공감한다"면서도 "농축수산물은 환금성(換金性)이 없는 단순 먹거리 재료라 뇌물로 사용될 수 없어 수수금지 품목에서 제외해도 부정부패 척결이라는 법의 근본적인 목적을 훼손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또 "수산업계는 한·중 자유무역협정(FTA) 등 수산물 시장개방에 대응하기 위해 고부가가치 상품 개발과 품질향상을 위해 노력해 왔다"며 "김영란법 시행으로 상대적으로 저렴한 수입 수산물이 반사이익을 누리는 사태가 발생하지 않도록 음식·선물 상한액을 현실에 맞게 상향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청탁금지법 개정 촉구' 한수총 성명서

청탁금지법 시행과 관련, 전국 138만 수산산업인을 대표하여 한국수산산업총연합회는 다음과 같은 입장을 제시한다.

첫째, 청탁금지법이 우리 사회의 투명성 제고와 국가 청렴도 향상에 기여할 것이라는 긍정적인 측면은 충분히 공감한다.

둘째, 농수축산물은 환금성(換金性)이 없는 단순 먹거리 재료로써 뇌물로 사용될 수 없으므로 농수축산물을 수수금지 품목에서 제외하더라도 부정부패 척결이라는 청탁금지법의 근본적인 목적을 훼손하지 않는다. 이에 농수축산물이 수수금지 품목에서 제외되도록 청탁금지법의 조속한 개정을 촉구한다.

셋째, 청탁금지법 시행으로 상대적으로 저렴한 수입 수산물이 반사이익을 누리는 사태가 발생하지 않도록 음식 및 선물 상한액을 현실에 맞도록 상향하여야 할 것이다.

넷째, 현재 우리 수산산업은 존폐의 기로에 놓여 있다. 안정적인 환경에서 지속가능한 수산산업을 영위할 수 있도록 중국어선 불법조업 단속 강화, 수산물 유통인프라 확충 및 수출판매채널 신규 구축 등 수산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국회와 정부의 적극적인 관심과 지원이 필요하다.

수협, 2015년 어업경영조사 결과

어업수입은 전년도와 비슷 … 어업비용은 유가하락으로 감소해 수익성 개선

지난해 어업경영조사 결과 어업수입은 어획량 감소에도 불구하고 kg당 판매단가 상승으로 인해 전년도 10억 9300만원보다 0.2% 증가한 10억 9500만원을 기록하였으며, 어업비용은 유가하락 등으로 인해 전년도 9억 5800만원보다 3.6% 감소한 9억 2400만원을 기록함에 따라 재무건전성과 수익성에 개선이 이뤄진 것으로 나타났다.

이 같은 결과는 비용감소 효과가 상대적으로 크게 반영된 것으로, 어업비용의 큰 부분을 차지하는 유류비의 감소가 주요인으로 작용한 것이며 일시적인 효과로 해석된다.

수협중앙회 수산경제연구원이 최근 발표한 국가 승인통계인 2015년도 어업경영조사결과에 따르면 어구비(15.0%)와 수리비(7.1%)는 상승한 반면, 연료비(△19.9%)는 크게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수협중앙회는 지난해 어업경영 조사결과 어업수입은 전년도와 비슷하지만 유가하락으로 어업비용은 다소 줄어 수익성이 개선되고 있다고 밝혔다.

조사결과에 따르면 14개 허가어업의 조업상황은 연간 출어횟수 55회, 출어일수가 187일로 전년도의 56회, 185일과 비교하여 출어횟수는 감소하고 출어일수는 증가했다.

연간어획량은 244톤으로 전년도 255톤에 비해 4.3% 감소한 것으로 조사됐다.

재무상황에 있어서 1경영체당 평균 자산은 전년도 10억7400만원보다 1.6% 증가한 10억9100만원, 부채는 전년도 3억500만원보다 1.5% 증가한 3억900만원으로 나타났으며, 자기자본은 전년도 7억6900만원보다 1.7% 증가한 7억8200만원으로 집계됐다.

한편 정치망어업의 수지상황을 살펴보면 어획량의 감소에도 불구하고 kg당 판매단가의 상승으로 연간 어업수입은 0.9% 증가한 3억6500만원이었고, 어업비용은 전년보다 1.7% 증가한 2억원으로 나타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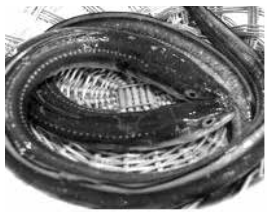
그 결과 어업이익은 전년보다 0.1% 감소한 1억6400만원으로 나타나 수익성이 하락한 것으로 분석됐다.

한편 수협은 매년 주요 근해어업의 경영실태 및 현황을 파악하여 국내 수산업 경쟁력 제고를 위한 정책수립 및 어업경영의 합리화를 위한 통계자료로 제공하고 있다.

조사대상 어업은 해양수산부장관 허가어업 14개와 면허어업인 정치망어업이며, 39개 회원조합에서 50명의 조사원이 205개의 표본체를 대상으로 조사를 수행했다.

해수부, 8월 어식백세 수산물 '장어류·오징어·한치' 선정

〈8월의 어식백세 수산물〉


장어류

오징어

한치

해양수산부(장관 김영석)는 고단백 스태미나 식품인 장어류와 국민에게 사랑받는 오징어, 한치를 8월의 어식백세 수산물로 선정, 발표했다.

장어는 고단백 스태미나 식품이자, 체내 독소를 배출해 피부미용에 탁월하다. 칼슘과 인, 철분도 많아 허약체질 개선이나 성인병 예방에 효과가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또한 비타민A의 보고라 할 만큼 비타민A를 많이 함유하고 있어 시력저하, 야맹증 예방에도 좋다. 불포화지방산이 많아 여름과 가을철 원기회복이나 성인병 예방에 좋고, 뇌세포를 활성화시키는 레시틴도 많아 학습능력과 기억력을 높여준다.

오징어는 단백질 함유량이 높아서 싼 가격에 양질의 동물성 단백질을 섭취할 수 있는 식품이다. 오징어에 많이 들어 있는 디에이치에이(DHA), 이피에이(EPA)와 같은 다가불포화지방산은 콜레스테롤 수치를 낮추어 성인병을 억제하며, 타우린이 다른 생선, 육류보다 많이 함유되어 있어 피로 회복이나 스태미나 증강에 효과가 있다.

한치는 25~30㎝ 정도 길이에 몸은 하얗고 살이 연하며, 맛이 뛰어나 회로 인기가 있다. 오징어처럼 타우린, 디에이치에이, 이피에이 등이 많이 들어 있어 콜레스테롤을 억제하여 고혈압 등 성인병 예방에 좋고, 성장기 아동의 두뇌 발달이나 치매 예방에도 효과적이라고 한다.

이달의 수산물로 선정된 장어류와 오징어·한치는 8월 한 달 동안 수산물 전문 쇼핑몰인 인터넷수산시장(www.fishsale.co.kr)에서 시중가격보다 10% 할인하여 판매한다.

한편, 이달의 지역축제행사로 8월 5일부터 8월 7일까지 전북 고창군에서 '2016 고창갯벌축제'가 열린다. 조개캐기, 장어잡기, 어망체험 등 다채로운 행사가 준비되어 있어 여름휴가로 아이들과 함께 방문하면 즐거운 시간을 보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서장우 해양수산부 수산정책관은 "8월은 본격적인 무더위가 계속되는 계절이니만큼, 몸에 좋고 맛도 좋은 장어와 오징어, 한치를 드시고 기력도 회복하시기 바란다."라고 말했다.

2016년 수산식품분야 신규 '명인' 공모

해수부, 현지 검증절차 등 거쳐 오는 11월 지정

해양수산부가 우수한 우리 수산식품의 계승과 발전을 위해 2016년도 전통식품분야 식품명인을 선정한다고 밝혔다.

식품명인은 우리 식품의 계승 발전을 위해 식품제조·가공·조리 등 분야의 명인을 지정 육성하는 제도로, 1999년부터 현재까지 총 3명이 지정됐다. 식품명인으로 지정되면 자신이 제조·가공·조리한 식품에 식품명인 표시를 할 수 있게 된다.

신청대상은 △해당 식품의 제조·가공·조리 분야에 계속해 20년 이상 종사한 자 △전통식품의 제조·가공·조리방법을 원형대로 보전·실현할 수 있는 자 △식품명인으로부터 보유기능에 대한 전수교육을 5년 이상 받고 10년 이상 그 업에 종사한 자 등이다.

해수부는 시·도를 통해 추천된 대상자에 대해 수산과학원의 분야별 전문가 등으로 현지 실사단을 구성, 심의를 거쳐 11월 중에 식품명인을 지정할 예정이다.

해수부는 식품명인에 지정되면 자긍심 고취와 언론홍보, 전시·박람회 참가 등의 지원과 함께 우리 전통식품의 수출확대 등과 연계되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산지직송 수산물 전문 쇼핑몰 피쉬세일 www.fishsale.co.kr
식탁 위의 건강한 먹거리 피쉬세일이 차려드립니다.
어업인 수산물 인터넷판매 한국수산회가 도와드립니다.

바라는 대로 다 이루어지는 곳
여름휴가는 어촌에서 보냅시다.

"우리 서해의 점박이물범 보호해 주세요"

해수부, 8월의 해양생물로 점박이물범 선정

해양수산부(장관 김영석, 이하 해수부)가 우리 서해바다의 대표 해양생물인 '점박이물범'을 8월 해양생물로 선정, 발표했다.

점박이물범은 몸길이 1.4 ~ 1.7m, 몸무게 82 ~ 123kg인 소형 물범이다. 회색이나 황갈색 몸체에 검은색과 흰색 점무늬가 있고, 사람의 지문처럼 옆머리의 점무늬로 개체를 식별할 수 있다.

서해에서 서식하는 점박이물범은 봄부터 가을까지 주로 백령도와 최근 해양보호구역으로 지정된 가로림만에 머물다가 겨울철에는 중국 보하이 랴오둥만으로 이동한다. 이들은 겨울철 유빙 위에서 1 ~ 2마리를 출산하며, 이 때에는 일부일처제를 유지한다.

최근 백령도에서 서식하는 점박이물범은 번식지 유빙 감소, 해양환경 오염, 불법조업 등에 의한 먹이생물 감소 등으로 인하여 2002년 340마리에서 2011년 246마리로 개체수가 줄어들고 있다. 이에 해수부는 지난 2006년 점박이물범을 보호대상해양생물로 지정하고, 올해 7월 28일 제2 서식지인 가로림만을 해양보호구역으로 지정하는 등 점박이물범과 같은 해양생물종 서식처의 보전·관리에 힘쓰고 있다.

특히, 지난 2011년 제주도에서 구조된 점박이물범 '복돌이'를 오는 8월 방류할 예정이다. 해수부, 해양환경관리공단, 아쿠아플라넷 제주 등은 5년 가까이 수족관에 지내온 복돌이가 야생에 적응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다.

한편, 해양환경관리공단은 해양생물 보호의 중요성을 알리기 위하여 매월 해양생물정보공유앱(마린통)에서 '이달의 해양생물 알아맞히기' 행사를 하고 있다.

(사)한국자율관리어업 연합회 소식란

제13회 자율관리어업 전국대회 개최준비에 '총력'

10월27~28일 강원도 동해시 실내체육관에서 열리는 제13회 자율관리어업 전국대회의 성공적인 개최를 위해 지난 8월 18일 동해시 실내체육관 인근에 전국대회 추진위원회 사무실을 마련하고 출범식을 가졌다.

2016년도 성공한 지도자 공동체 순회교육 실시

한국자율관리어업연합회는 지난 7월 26일 경남 통영 욕지수협 회의실에서 서부공동체 구성원 및 관계자 등 27명이 참석한 가운데 '2016년도 성공한 지도자 공동체 순회교육'을 실시하였다.

이날 교육에서는 자율관리어업 정책방향(강사: 홍종민 전북담당 컨설턴트) 및 공동체 수익사업 모색방안(강사: 김호연 백미리 공동체 위원장) 등을 강의하였다.